

【논 문】

근대 일본의 만주 수학여행과 만주 인식*
-가쿠슈인(學習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세가와 레이(長谷川怜, 번역 : 柳采延)**

┆ 차 례 ┆

1. 서론 - 일본인의 만주 도항, 만주 여행의 시작-
2. 학생들의 만주 방문과 동아동문서원(東亞同文書院)
3. 가쿠슈인(學習院)의 만주 교육과 해외 수학여행
4. 시라토리쿠라치키(白鳥庫吉)의 만주 수학여행 참가
5. 학생들이 본 만주 - 다이쇼시대의 '지나만선수학여행'
6. 맺음말

국문초록

1906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만주에서의 권익 확보와 함께 만주 경영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만주에서 일본인 사회의 형성은 진척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만주 경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형성이 절실하였다.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만이 아닌 실제로 현지를 보여주는 만주여행을 기획하게 되었다. 실제로, 일본 전국의 학교들이 육군과 문무성의 지원으로 만주 수학여행을 실시하였다. 당시 황족과 화족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가쿠슈인은 白鳥庫吉 등 저명한 동양사학자가 동양학을 강의하는 등 학생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하였다. 여행에 참가한 학생들은 장래 만주와 대중정책에 관여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일본의 만주 정책과 경영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학생들 가운데는 만주 수학여행을 계기로 외무성의 조사원으로 성장해서 중국정책에 관여한 인물도

* 본 논문을 집필하는데 尙友倶樂部の 上田和子씨, 가쿠슈인대학사료관의 長佐古美奈子씨, 가쿠슈인아카이브의 桑尾光太郎씨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 (일본)학습원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사학전공 박사후기과정(hasegawarey@yahoo.co.jp).

있었다. 만주 수학여행은 만주경영을 선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재육성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는 만주 수학여행을 일본이 추진하는 대륙 정책의 일부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러일전쟁, 旧制學習院, 만주수학여행, 白鳥庫吉, 제국익식

1. 서론 - 일본인의 만주 도항, 만주 여행의 시작-

일본이 만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러일전쟁이었다. 1904년 발발했던 러일전쟁은 그 다음 해인 1905년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9월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강화조약에서 관동주(위순과 다렌)의 조차권, 위순-장춘간 동청철도의 남부지선과 부속권역의 일본에 대한 양도, 남사할린의 할양 등이 결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일본과 청국 간에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일본은 러일간에 체결한 만주에서의 권익을 청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상의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를 중핵으로 만주에서의 권익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만철 혹은 미쓰이물산(三井物産) 등 직원을 비롯해 사진관이나 세탁소, 잡화점 등을 경영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만주로 건너갔는데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관동주나 만철부속지 등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 집중하였다.

만주 경영을 추진하는 정부나 육군 등 정책 주체들은 보다 많은 일본인의 만주 도항과 함께 경제관계를 강화시킬 것을 기대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만주경영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 선전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그렇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대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고 또한 국내에서도 철도 국유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만주경영을 개시하는 것은 특히 경제면에서의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정책 주체들은 만주경영에 대한 호의적인 국민

여론의 형성이 불가결하였다. 즉, 만주를 소개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 미디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인쇄물과 그림엽서 등 만주를 광고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다. 또한, 실제로 만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만주여행도 그런 광고활동의 일환이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만주여행은 1904년 6월 정부가 개최한 러일전쟁의 관전여행이었다. 신문기자와 소설가 등을 배에 태우고 국내의 해군시설이나 포로수용소, 조선반도, 요동반도 근해를 순회하는 것이었다. 러일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민간 차원에서도 만주여행이 기획되었다. 가장 대규모 만주여행은 1906년 7월 오사카아사히신문이 주최한 ‘만한순유선(滿韓巡遊船)’ 여행이었다. 이는 374명이 참가한 대규모 여행이었으며 “동포가 용전분투한 발자취를 애도하기 위해, 또한 만한 땅에서 상공업 시찰을 위해”¹⁾ 기획된 것이었다. 계획의 실시단계에서는 군부와 만철과 같은 만주경영에 관련된 국책기구들의 전면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림] 舊制學習院의 해외 수확여행 지도

1) 『東京朝日新聞』, 1906년 7월 25일.

[표 1] 旧制學習院의 海外修學旅行一覽

연월일	행선지	참가자수
1918년*	靑島、濟南、曲阜、北京、張家口、南口、天津、大連、旅順、奉天、平壤、京城	敎員3、醫官1、學生35
1919년*	블라디보스톡、니코리스크、하바로프스크ク、哈爾賓、長春、鐵嶺、奉天、安東、新義州、平壤、開城、京城、釜山	不明
1920년	基隆、嘉義、台北、淡水港、台南、角板山	敎員1、學生3
1921년	不明	不明
1922년	靑島、濟南、曲阜、泰安、北京、大同、石仏寺、天津、大連、旅順、奉天、新義州、京城	敎員1名、學生6名
1923년	不明	不明
1924년	알렉산드리아、루이코프フ、眞岡、多蘭泊、豊原、川上炭山、小沼、大泊、稚内、旭川、帶廣、札幌、苫小牧、支笏湖、白老、室蘭	敎員1、學生13
1925년*	大連、旅順、鞍山、奉天、撫順、洮南、鄭家屯、公主嶺、長春、哈爾賓、安東、平壤、京城、釜山	敎員1、學生6、OB1
1926년	基隆、台北、桃園、角板山、台中、二水、嘉義、阿里山、台南、高雄、屏東、草山	敎員1、學生3、OB1
1929년	釜山、京城、元山、長箭、溫井里、平壤、奉天、撫順、長春、哈爾賓、大連、旅順	敎員1、學生14
1906년*	大連、旅順、奉天、京城【滿洲敎員視察旅行】	敎員6、學生14
1942년	【慰問旅行】釜山、京城、平壤、奉天、大連、旅順、撫順、公主嶺、新京、哈爾賓、北安、孫吳、牡丹江、圖們、羅津(張鼓峰)	不明

(주) *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여행.

(자료) 『輔仁會雜誌』과 『學習院時報』 등으로부터 필자가 작성.

2. 학생들의 만주 방문과 동아동문서원(東亞同文書院)

아사히신문이라는 미디어의 주체로 기획된 만한순유선의 이벤트는 수많은 만주 여행단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만주의 자원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여행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만한 수학여행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만한순유선 이벤트의

상황을 목격한 육군은 1906년 6월 중학생 이상 학생들의 만한여행에 대해서는 어용선의 무상승선을 허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도쿄고등사범학교와 도쿄부립사범학교가 가장 먼저 만한수학여행을 기획하였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여행은 아니지만, 1906년 7월 실시한 ‘만주교원시찰여행’에는 중등 교육기관 이상의 학생, 교원 및 소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3,694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였고 이는 문부성과 육군성이 적극 지원하였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수학여행에 육군이 관여해야만 했던 이유는 러일전쟁 종결 직후 만주에 대한 민간인 도항을 위해서는 현지의 시정을 담당하는 육군의 협력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여행이 끝난 직후 당시 문부대신이었던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가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앞으로 “많은 편의를 봐 주신 덕분에 여행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²⁾라는 감사장을 보더라도, 당시 육군의 협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1906년 단지 한해에 걸쳐 육군성의 편의를 제공받고 만주와 한국을 여행했던 교원과 학생의 총수는 7,000명에 달하였다.³⁾ 1906년 여행을 시초로 만주 수학여행(조선반도와 중국의 화북지방을 포함하는 경우도 다수)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 전역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실시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근대 일본의 해외여행을 망라한 아리아마 테루오(有山輝雄)⁴⁾는 1906년 아사히신문이 기획한 ‘만한순유선’에 따른 만주여행 붐을 소개하면서 같은 여행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승리에 의해 함양된 제국의식을 뒷받침하는 일본 국민들의 전체적인 경향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코엔(高媛)⁵⁾은 러일전쟁 전야 군인과 아시아주의 단체의 시베리아와 만주 조사여행과 러일전쟁 중의 관전여행 참가자들이 집필한

2) 「諸學校職員及生徒等滿韓地方旅行ニ關シ挨拶ノ件」, 1906년 9월 12일, 『明治三十九 滿大日記 九月上』, 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

3) 「學校職員生徒滿韓旅行ノ件」, 1907년 3월 16일, 『貳大日記 明治四十年乾』, 防衛省防衛 研究所図書館.

4) 有山輝雄, 2002, 『海外旅行の誕生』, 吉川弘文館.

5) 高媛, 2008, 『戦地から観光地へ-日露戦争前後の「滿洲」旅行-』, 『中國21』 29호.

여행기가 만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함으로서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일전쟁 후에는 자원조사 목적의 여행이 실시되었고, 만주를 이원(利源)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사회 일반의 인식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만주 수학여행의 보급으로 뤼순에서 전쟁의 자취를 견학한 학생들이 귀국 후에는 ‘일본의 위력’을 실감하고 제국의식을 함양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베 야스나리(阿部安成)⁶⁾는 1907년 실시된 야마구찌(山口)고등상업학교의 수학여행 사례에 주목해서 대륙으로 건너간 학생들이 ‘만한경영(滿韓經營)’의 의의를 생각하거나 광대한 대륙을 경험한 이후 일본의 해외발전을 크게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宋安寧⁷⁾의 연구는 1906년 문부성과 육군성의 협력으로 중등교육학교 이상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만주교육시찰여행’을 분석하였다. 여행에 참가한 일본인 교원들이 중국에 대해 진승국의 우월감에 젖었으며, 일반여론은 만주여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여행에 참가했던 당사자는 관임이나 주임급으로 여행 중에 육군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였고, 여행 중에 사망자나 병자가 발생하기도 해서 당시 사람들이 여행자 선정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리 히사오(森久男)⁸⁾는 동아동문서원(東亞同文書院)에 근무하며 만주를 조사했던 교원들에 주목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일기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만주 조사여행 그 자체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만주여행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 성과가 있지만, 주요 논지는 ① 전쟁 승리 이후 제국의식이 만주여행 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② 참가자가 주로 뤼순에서 전쟁의 흔적을 견학하고 일본의 위력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 ③ 당시 만주 여행자에게는 제국국민으로서의 우월적인 시선이 있

6) 阿部安成, 2008, 「大陸に興奮する修學旅行－山口高等商業學校が中心の「滿韓支」「鮮滿支」－」, 『中國21』 제29권.

7) 宋安寧, 2008, 「1906(明治39)年における「滿洲教員視察旅行」に関する研究」(神戸大學), 『研究紀要』 제1권 제2호.

8) 森久男, 2008, 「東亞同文書院教授鈴木擇郎の滿州國調査旅行」(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 『紀要』 제114호.

었다는 점 등의 지적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만주여행을 실시했던 학교들은 어떠한 교육효과를 기대했던 것일까. 또한 학교의 만주여행을 여러 회에 걸쳐 분석한다면, 이로부터 발견되는 특징은 없을까. 본 연구는 만주여행을 실시한 학교 가운데서도 특히 구가쿠슈인(旧制學習院)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당시 가쿠슈인을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정치, 외교, 군사 부문의 핵심에 종사하는 인재로 성장해서 만주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 또한, 당시 가쿠슈인에는 다수의 저명한 동양사 학자가 재직하며, 높은 수준의 동양사와 동양문화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쿠슈인의 만주 수학여행에는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① 가쿠슈인의 만주여행 개요를 제시하고 ② 학생들이 작성한 감상문의 특징을 분석한 뒤 ③ 해외 수학여행과 가쿠슈인⁹⁾의 교육방침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④ 문부성이 관할하지 않았던 황족과 화족의 자제를 교육하는 특수 학교였던 가쿠슈인의 해외 수학여행이 정부기관이나 군으로부터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았는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일반 학생들의 만주여행이 1906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수학여행은 어디까지나 현지 견학 혹은 러일전쟁의 자취와 일본이 경영한 기관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전승의 위대함’이나 ‘일본의 발전’을 실감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요하는 만주경영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잠재적인 지지자를 창출하는 것이 만주 수학여행의 근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주라는 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분석이나 연구는 수학여행에서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주와 중국여행은 없

9) 가쿠슈인은 천황의 교육기관으로 1847년 교토황궁 옆에 설치된 것에 기원한다. 유신 이후 한번 폐지되었으나 1877년 메이지천황이 황족·화족의 교육기관으로 도쿄에 새로이 개설하였다. 문부성이 아닌 궁내성이 관할하였다.

있던 것일까. 그에 해당하는 것이 동아동문서원 학생들의 ‘대여행’이었다. 동아동문서원은 1890년 아라오 세이(荒尾精)가 설립한 일청무역연구소에 기원을 두었으며, 1901년 상하이에 설립된 중국 지역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였다. 원장은 네쯔 하지메(根津一)였다. 설립 다음해 외무성은 이 학교에 중국 서북부에서의 러시아 남하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였고 이에 OB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이후 최종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중국 각지를 조사 여행하는 ‘대여행’이 제도화되었다. 같은 여행의 조사보고는 졸업논문으로 제출되어 『支那省別全誌』 전18권으로 간행되었다.

1920년대까지 상하이시 공안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행받아 각지에 그 허가증을 제시하는 형태로 조사 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동과정에서 불안정한 치안 지역에서는 역내 최고 관리 등이 지휘하는 군대의 호위가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만주국의 ‘건국’을 둘러싸고 국민정부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하이공안국도 당시 국민정부 예하에 있었기 때문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여행의 실시지역은 만주국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동아동문서원의 사례는 수학여행과는 다른 것이지만 전전기 일본 학생들의 중국과 만주여행의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3. 가쿠슈인(學習院)의 만주 교육과 해외 수학여행

교육현장에서는 만주라는 지역을 어떻게 가르쳐왔는가. 구가쿠슈인의 교육 사례에 주목해 보자. 가쿠슈인은 [사진 1]과 같이 188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동양사 교육(정확한 수업명은 東洋諸國歷史)을 시작하였다. 담당자는 저명한 동양사학자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¹⁰⁾였다. 또한, 메이지 시대부

10) 당시 저명한 동양사학자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는 제국대학 문과대학



[사진 1] 女子學習院의 동양사 수업. (쥬제도를 사용한 동양사 수업 장면. (자료)大正初期, 學習院大學史料館所藏.

터 ‘역사지리표본실’을 설치해서 광개토왕비의 탁본이나 고대 중국의 용(甬), 근대에 촬영된 사진 등 많은 실물자료를 소장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리나 역사시간에도 적극 활용되었다.¹¹⁾ 표본실을 촬영한 다이쇼 시대의 사진에서도 ‘만주토인기구’란 표시와 함께 만주 문자가 들어간 옷이나 도기, 이편의 흡인도구 같은 기구 혹은 몽고산으로 추정되는 투구 등 전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표본실은 관동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어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

사학과를 졸업하고 1921년까지 가쿠슈인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1904년부터 제국대학교 수를 겸임). 동양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 분야는 역사의 범주를 넘어 지리, 민족, 민속, 신화, 전설, 언어, 종교, 고고 등이다. 동양문고(東洋文庫)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11) 역사지리표본실에 관해서는 나가사코미나코(長佐古美奈子, 2013), 『學習院における歴史教育の始まりと標本』, 『學習院大學史料館紀要』 제19호를 참조.

12) 學習院大學史料館編, 2011, 『大正の記憶 學習院大學所藏写真』吉川弘文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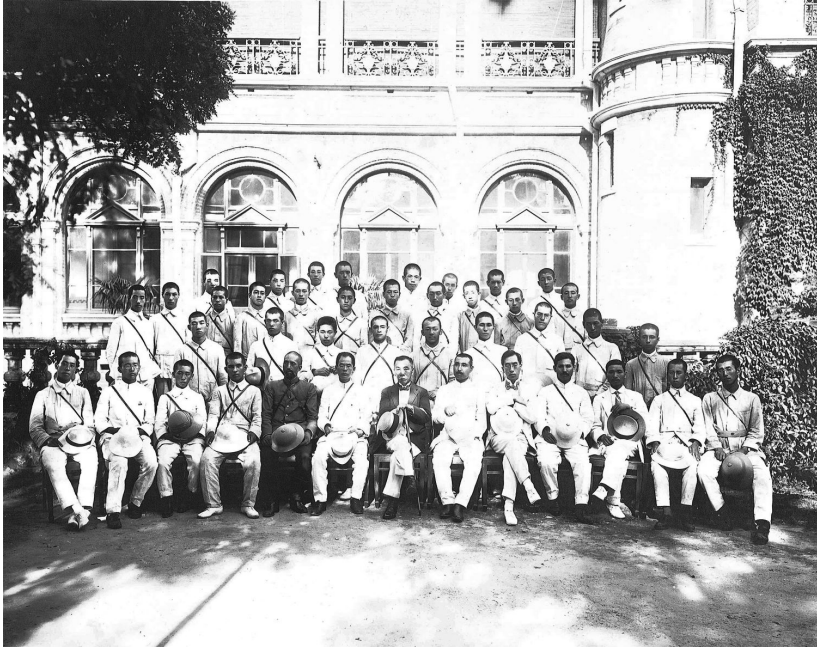
었지만, 그 후에도 적극적인 수집과 관계자로부터 기증의 결과, 다시 많은 수의 수장품을 확보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새롭게 수집한 자료 가운데는 푸순 노천탄광에서 채굴된 석탄 혹은 안산제철소에서 생산한 선철 그리고 압록강 목재 등 일본의 만주 경영과 그 권익의 표본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¹³⁾

표본실의 소장사료 이외에 만주에 특화된 표본함도 현존하고 있다. 바로 가쿠슈인 초등학교에 보관된 ‘만주물산표본’이다. 목제함 내부에는 여러 표본이 들어 있는데 이는 모두 관동부의 토산물이다. 사용되었던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만주물산’이라 불리면서 관동부의 토산물로 표시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만주국 ‘건국’ 이전 메이지-다이쇼기의 것으로 추측된다.

가쿠슈인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일련의 표본자료 가운데는 물론 만주물산 이외에도 일본 국내와 사할린 등 외지물산, 서구, 아프리카물산 등 여러 종류의 표본함이 존재하지만, ‘외국물산표본 아시아주’와는 별도로 만주물산 표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만주에 대한 지식의 함양을 지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함된 토산물에는 시멘트, 조, 소금, 대두, 콩깻묵, 쌀, 고량, 비단, 쇠가죽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일본이 직접 제조와 유통을 담당했던 물산이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교육에서 이들 표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교사가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대두 판매와 다렌에 입지했던 오노다시멘트(小野田セメント) 공장에 관한 것들이 화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실물을 활용한 교육은 해외 수학여행의 실시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력범위였던 만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가쿠슈인의 만주 수학여행을 검토해 보자.

13) 이들 사료는 현재 가쿠슈인대학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다. 실물 자료에 관해서는 學習院大學史料館編, 2013, 『百聞は一見ニ如カズ-旧制學習院歴史地理標本室移管資料』라는 자료명으로 발간되었다. 자료집은 칼라 사진을 포함한 상세한 목록이다. 역사지리표본실에 대해서는 나가사코미나코(長佐古美奈子, 2013), 『學習院における歴史教育の始まりと標本室』, 『學習院大學史料館紀要』 제19호를 참조.



[사진 2] 學習院學生의 수학여행. (좌)北京공사관저 앞에서 林權助공사(앞열 중앙)와 함께 기념촬영. 林공사의 좌측은 철학자 鈴木大拙. (자료)1918年, 學習院大學史料館所藏.

가쿠슈인에서 해외 수학여행 혹은 해외 견학여행은 [사진 2]와 같이 1918년(다이쇼7년)부터 실시되었다. 여행에는 학년 모두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희망자에 한정되었다. 여행지는 만주, 조선(한국), 북지(北支, 중국북부), 내몽고, 시베리아 등지였다. 학교가 주최하는 정규 수학여행 이외에도 학생과 교원이 대만, 남사할린, 캄차카 등을 여행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년은 고등과 학생과 중등학교 5학년생이었으며, 여비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70-300엔¹⁵⁾이었다.

14) 예를 들어, 1907년 7월 교원의 인솔하에 학생 10명이 사할린을 여행하였다. 이 가운데 정치가로 성장한 키도 코우이치(木戸幸一)도 있었다. 또한, 이들 여행과 관련해서 참가 학생(경우에 따라서는 교원도 포함)은 『輔仁會雜誌』에 상세한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이 관례였다.

15) 당시 170엔은 2011년 기업물가지수를 활용해서 계산(686.4엔(2011년)/1,246엔(1918년)=550

그런데 1918년 이전에도 가쿠슈인 학생들의 해외여행 사례가 있다. 그 최초가 1906년 7월 시행된 ‘만주교원시찰여행’이었다. 여행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했지만, 이는 문부성과 육군성의 기획여행이었으며 가쿠슈인의 독자적인 기획여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교우회잡지인 『輔仁會雜誌』¹⁶⁾의 별책으로 144페이지에 달하는 『滿韓旅行紀念号』를 발행하였고, 이는 가쿠슈인에서 만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1911년에는 외국어학교가 주최한 청도여행에 가쿠슈인의 학생들(하라다쿠마오/原田熊雄, 나카무라칸시/中村貫之)¹⁷⁾ 4명이 참가하여 그 감상문을 『輔仁會雜誌』에 게재하였다. 이는 「청도진화(靑島珍話)」라 명명된 단편인데 여기에는 “본 학교에서도 하기휴가를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단체여행을 실행할 것을 희망한다”¹⁸⁾는 문장이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참가자들의 목소리도 있어서인지 가쿠슈인 내부에서도 해외 수학여행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무산되었고, 1918년에야 겨우 제1차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있었다. 여행은 매년 개최되었으나 1927년은 다이쇼천황이 서거하면서 여행이 중지되었고 그 후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정규 수학여행은 합계 9회였지만 1924년 8월 외무성의 對支문화사무국이 문부성에 위탁해서 시행했던 만주와 중국여행에도 가쿠슈인의 참가자도 있었다. 또한, 1939년 7월 가쿠슈인은 문부성의 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

엔, 170엔*550엔=9만 3,500엔)하면, 약 9만 엔이다. 300엔이라 하더라도 약 15만 엔 정도이다. 따라서 외무성과 육군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었다.

16) 『輔仁會雜誌』는 1890년 창간한 가쿠슈인의 교우회 잡지이며 1년에 2-3회 발행되었다. 그 내용은 학교의 행사정보, 학생의 투고 작품(문예, 논설, 기행문), 교원의 논설, 강연록, 아동의 작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으며, 현재까지도 발행되고 있다. 또한, 1922년에는 고등과생들을 중심으로 『學習院時報』라는 교우회 잡지를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17) 나카무라칸시(中村貫之)는 1906년 만주교원시찰여행에도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두통 기미가 있어서 먼 길은 불안하다”를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아버지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次郎)는 만철 설립위원으로 나중에 만철 총재에 취임하였다.

18) 『輔仁會雜誌』 제85호, 1911년 12월, 151면.

은 대체안으로 ‘동아건설의 일 단면을 견학하고 학생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조선과 만주여행을 예외적으로 기획 실시하였다.¹⁹⁾ 이 여행에는 만주에 주둔한 병사의 위문과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에 대한 시찰 등이 포함되었다.²⁰⁾

4. 시라토리쿠라치키(白鳥庫吉)의 만주 수학여행 참가

가쿠슈인의 학생들이 참가한 만주여행의 시초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06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된 ‘만주교원시찰여행’이다. 가쿠슈인 중등학교와 고등과에서 모두 14명이 참가하였다.²¹⁾ 여행의 참가자 선발은 문부성이 희망자를 조사하여 도부현(道府縣)²²⁾별로 참가자를 배당하였다. 가쿠슈인은 궁내성이 관할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문부성과 육군성 앞으로 참가 의뢰와 편의제공을 조회하였다. 육군성에 대해서는 “본 학교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에게도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해주기 바란다”²³⁾는 의뢰서를 제출하였다. 육군성은 같은 의뢰를 수용해서 ‘문부성에 통첩’한 후에 편의제공을 약속하였다.²⁴⁾ 이렇게 해서 가쿠슈

19) 봉사활동 불참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궁내성 관할의 가쿠슈인에 대한 내무성의 통지가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시기 가쿠슈인의 만주여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20) 『學習院學生ノ滿鮮見學旅行ニ關スル件』, 『臺大日記 昭和十四年七月』, 防衛省防衛研究所.

21) 고등과 : 加納久郎, 酒井春雄, 三島弥彦, 華園眞淳, 柳生基夫, 瓜生剛, 板倉勝則, 森訥郎. 중등학교 : 松平定晴, 酒井四郎, 山本八十吉, 小泉徳次郎, 岡田忠一, 原亮九郎. 감독 및 학술지도직원 : 眞崎誠(교수), 伊奈紋吉(무과청탁 : 후비육군보병소위). 학술지도직원 : 原田稔甫(교수), 大室兵馬(교수), 山田倉左郎(무과청탁). 또한, 시라토리는 가쿠슈인으로부터 만주의 역사 문물 수집을 위촉받아 도쿄사범학교와 동행하였다. 그 때문에 가쿠슈인의 참가자 명부에 시라토리의 이름은 없으나 여행길 대부분을 가쿠슈인 학생들과 함께 하였고, 귀국 후에는 문집 편찬의 대표를 맡았다.

22) 宋安寧, 2008, 『1906(明治39)年における『滿洲教員視察旅行』に關する研究』, 『神戸大學大學院人間發達環境學研究科研究紀要』 1-2, 38면.

23) 『陸軍次官へ依頼案』(1906년 7월 6일), 『學習院重要雜錄 明治三十九年』, 가쿠슈인아카이브.

24) 陸軍次官より學習院長宛書簡(1906년 7월 9일), 『學習院重要雜錄 明治三十九年』, 가쿠슈인아카이브.

인도 다른 학교와 같은 조건으로 여행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 참가자들은 “출정 군인을 닮아 용맹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병사들은 만주의 벌판에 죽으러 갔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지금 만주의 하늘을 향한다”²⁵⁾라는 학생다운 감상주의적 언설과 함께 여행을 출발하였다. 그들은 도쿄에서 열차를 타고 고베로 향한 뒤 고베에서 배를 탔다. 그리고 이틀 주야를 항해한 후에 다롄에 상륙하였다. 항해 도중 그들은 일본해해전이 벌어졌던 해역을 통과하였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같은 장소에서 ‘바다 위의 서의 최대의 축하법으로 원형회전’을 벌였다.²⁶⁾ 이처럼 그들은 전년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몸소 체험하며 만주로 향하였다.

일본의 조차지가 된 요동반도 끝자락의 관동부에서는 식민지 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다롄과 격전지였던 뤼순을 견학하였다. 관동부는 가쿠슈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만주 수학여행의 주요 견학지였다. 이곳에서 가장 처음 숙박처가 된 곳은 ‘만주관’이다. 이곳은 1900년 러시아가 세운 건물이었지만, 일본이 다롄을 강점한 후에는 다롄하얏트호텔로 개조되었고 나중에는 만철 본사가 점유하게 되면서 만주 물산을 진열하는 ‘만몽자원관’으로 바뀌었다.²⁷⁾ 일본의 만주 경영과 이를 상징하는 건물에서 그들은 여행의 첫날밤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뤼순으로 향하였다.

뤼순은 러일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다. 6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연수에서의 전투는 당시 신문과 잡지 등 모든 미디어에 보도되었고, 함락 당시에는 거국적인 축하행사가 치러졌다. 가쿠슈인에서도 함락을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뤼순에 직접 답사한 학생들은 선명하고도 강렬한 기억을 남겼다. 학생들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감상문으로부터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애도와 경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25) 『滿韓旅行紀念号』 1907년, 55면. 같은 책은 『輔仁會雜誌』의 별책이다.

26) 『滿韓旅行紀念号』 61면.

27) 건축물은 이미 폐허가 되었지만, 2013년 현재 다롄시의 구러시아 거리(俄羅斯風情街)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28) 『滿韓旅行紀念号』 69면.

포탄이 비처럼 내리는 한복판에, 이 언덕을 올라가 살과 피를 바쳐 이곳을 점령한 동포의 공은 그저 ‘위대’라는 두 글자로서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또한, 그들은 뤼순만에 러시아 침몰함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203고지에서 “머리카락이 붙은 두개골이나 수족의 백골 등이 겹겹이 황야에 묻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전쟁 이후 쉽게 戰績 순회가 가능하게 된 ‘관광지’로서의 뤼순이 아닌 전쟁이 남긴 피해의 흔적을 생생하게 체감하는 탐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뤼순에서의 격전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부성은 주의사항에 “불발탄과 철제수류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손대지 말 것”²⁹⁾이라는 경고문을 기록하고 있다. 불발탄이 산재하는 위험지역에 학생을 여행하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의 뤼순견학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실시되었던 것이다.³⁰⁾

다렌과 뤼순을 견학한 이후 그들은 만철 노선을 따라 북상하여 평토펜과 푸순을 견학하였다. 거기서 또 안동현을 지나 한국에 이르러 귀국의 길에 올랐다.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다이쇼 시대에 실시된 정규 수학여행을 포함하여 가쿠슈인의 학생들은 가쿠슈인을 졸업한 육군사관으로부터 특별히 식사 대접을 받거나, 정부나 육군기관 등을 통해서 쉽게 참관할 수 없는 시설을 견학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 이는 여행 이후 가쿠슈인으로부터 한국 주둔 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발송한 서면에서 “본 학교의 학생들이 만한지방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 경성체류 중 학생들에게 많은 맥주와 껌련을 선사해 주셔서 일동은 감사드립니다”³¹⁾라는 문장으로부터서

29) 「記」(문부성에 의한 여행의 마음가짐. 본 서류는 곤약을 이용한 등사판으로 문부성의 폐지에 인쇄되었으며, 인솔자 주의사항 등의 서류와 함께 수록된 글이다. 『學習院重要雜錄 明治三十九年』, 가쿠슈인 아카이브.

30) 『學習院重要雜錄 明治三十九年』, 가쿠슈인 아카이브.

31) 「長谷川男爵(韓國駐劄軍司令官)へ禮狀案」1906년 8월 16일, 『學習院重要雜錄 明治三十九年』, 가쿠슈인아카이브.

도 확인할 수 있다.

인솔자로서 여행에 동행한 가쿠슈인 교수 시라토리쿠라키치는 “학생들이 여행에서 얻은 지식이 크고 많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³²⁾ 고 여행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학생들 자신은 이 여행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학생들은 귀국 후 『輔仁會雜誌』의 별책인 『滿韓旅行紀念号』를 발행하여 각각 여행의 감상문을 기고(서문은 시라토리)하였는데, 감상문으로부터 학생들의 만주관 혹은 조선관을 개관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들은 여행을 통해서 대체로 ‘일본의 발전과 위대함’이라 할 수 있는 우월감과 동시에 중국과 조선에 대한 멸시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러일전쟁 직후라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전승국이며 외지(外地)를 장악한 제국의 국민이라는 의식이 여행 중에 현저히 드러난 것이다.³³⁾ 또한 가쿠슈인 학생의 특징으로는 단순히 멸시감 혹은 우월감만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들이 장래 만주경영에 관여할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푸순탄광으로 대표되는 이원(利源)에 대해 비상한 관심과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만주와 한국의 국경지대 안동현에서 일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상으로 외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미래의 외교관을 목표로 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외지 경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³⁴⁾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일본 상품 진열소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할 점을 제시하거나 푸순탄광의 경영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게재하는 등 단지 만주를 견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만주 경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³⁵⁾ 그리고 학생들이 대거 만만을 견학

32) 『滿韓旅行紀念号』 2면.

33) 이 여행에 참가한 교원들이 제국의식을 드러낸 것은 이미 宋安寧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는 학생들의 감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4) 『滿韓旅行紀念号』 86-87면.

35) “거의 모든 내지상품을 망라하고 싶다면 말이 되는 광고지만, 우리 비전문가 눈으로 보아도 난잡한 진열, 支那 취향이 아닌 의장 등 미비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본토인도 입장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모양이다”라는 것이다. 『滿韓旅行紀念号』

하는 것이 국책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를 가리켜 ‘거류지가 아닌 우리의 땅’이라 기술하거나 만주지역을 상륙할 때에 ‘드디어 신영토를 밟는다’고 표현하는 등, 그들이 ‘남만주=일본의 땅’이라는 의식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이것은 학생에만 국한된 의식이 아니라 당시 대개의 일본인의 일반적인 의식이기도 하였다. 여론은 만주의 권익확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강조할 것도 없이 당시 만주는 어디까지나 청의 영토였으며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조차지 관동부와 만철 노선의 부속지뿐이었다.

다음은 현지인에 향하는 시선이다. 학생들은 만주에서 이동 중에 현지 중국인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그 감상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과 같은 중노동자들은 곳곳에서 멜론을 껍질도 벗기지 않고 말처럼 탐하고 있다...’는 등 노동자를 동물에 비유하거나 또는 초라한 사원을 보고 ‘차마는 기울고 기와는 떨어져 청나라 조정의 지금과 많이 닮았다’고 청조에 비유하는 등 현지의 풍속이나 풍경에 대해 멸시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³⁷⁾ 나아가, 청나라 전통 목욕탕을 방문했을 때에는 때밀이에게 몸을 씻겨달라고 하고 ‘수염을 깎고 또 코, 귀 등 닿는 곳 모두를 청결하게 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것은 불결한 청국인에게 흔치 않는 일’이라는 감상을 남기고 있다.³⁸⁾ 기본적으로 ‘청=불결=미개인’이라는 이미지였다. 이는 이른바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으로 어디까지나 자신들과는 다른 절대적 타자로 만주인을 인식하였다.

또 조선인에 대해서는 「여보(ヨボ)」³⁹⁾라는 멸칭을 쓰는 것 외에 조선인을

75-76면.

36) 『滿韓旅行紀念号』 64면

37) 『滿韓旅行紀念号』 74면

38) 『滿韓旅行紀念号』 67면.

39) 「ヨボ(여보)」는 본래는 부부간에 친근감을 담아 서로를 부르는 이인칭이지만 일본인은 한국인(조선인)의 누구에게나 일부로 「여보」라고 불렀다고 한다. 따라서 차별적으로 상대를 부른 말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청의 한 단계 낮은 존재로 보는 경향이 여행기 도처에서 관찰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⁴⁰⁾

조선시장에 들어갔다...중국인 거리에 비하자면 불결함의 정도나 도로가 진흙으로 넘쳐나는 모습은 청국이 더 심하지만 점포나 상업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논할 것도 없이 청국이 살아있는 쪽이라 한다면 조선은 마치 죽은 자와 같다. ...또 조선인은 청국인과 같이 부끄러움을 참고 인고를 견디는 힘이 결여되어 있다. 청국이 국가로서 빈약하지만 인종적으로는 세력이 있으며 장래도 유망한 이유이다.

이처럼 1906년 여행에서 관찰되는 가쿠슈인 학생들의 의식은 ①제국의 식·우월감, ②자신들이 장래의 만주경영에 관여한다는 자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동시대의 만주수학여행에 참가한 타학교 학생들과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나 장래에 만주 경영에 관여할 것이라는 자각은 가쿠슈인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하겠다.⁴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쿠슈인 학생들이 처음 참가한 만주 수학여행에는 교수 신분의 시라토리 쿠라키치도 참가하였다. 그에게는 ‘본교의 교과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한지방역사상참고품(滿韓地方歷史上參考品)의 수집’을 위해 150엔이 지급되었다. 시라토리는 1890년부터 1921년까지 가쿠슈인에서 동양학을 강의하였다.⁴²⁾ 1890년 가쿠슈인에 ‘동양제국의 역사’(동양사) 수업이 개설되면서 시라토리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 여행에서 ‘참고품 수집’을 위해 특별예산을 입안한 것은 당시 동양학 분야에서 최첨단의 연구를 주도했던 시라토리에 대한 가쿠슈인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를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라토리가 여행의 모든 일정을 학생들과 함께 한 것은

40) 『滿韓旅行紀念号』 88면

41) 宋安寧, 2008, 「1906(明治39)年における「滿洲教員視察旅行」に関する研究」, 『研究紀要』 1-2.

42) 學習院長山口銳之助(宮内大臣宛稟申案(1906.7.11), 「自明治廿八年 至同四二年 重要雜錄」, 學習院 아카이브소장.

아니었다. 7월 29일 “압록강의 한 지류인 동가강의 상류지방에 있는 ‘고구려광개토왕비’를 발굴, 운반하는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말하며 학생 일행과 헤어져 혼자서 조선반도로 향했”⁴³⁾기 때문이었다. 시라토리는 광개토왕비를 일본 국내로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 ‘전부터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가끔 이야기했었다’고 한다. 시라토리는 실제로 광개토왕비를 확인 조사한 후에 조선에서 다시 가쿠슈인 학생들과 합류하였다. 현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록한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운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문의 탁본을 수집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는 광개토왕비 비문의 탁본 두 종류(갑본·을본)가 소장되어 있다. 갑본은 1906년경에 탁본한 것으로 이 여행에서 시라토리가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또한 시라토리가 ‘만한지방역사상참고품’으로 가쿠슈인에 반입한 자료는 사료로 남는 기록으로서는 평토편 부근에서 발굴한 한나라 시대의 옛기와(古瓦)뿐이지만 현재 가쿠슈인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와 조선관계 자료의 일부는 시라토리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예전 구가쿠슈인이 자랑하는 높은 수준의 동양학 교육은 시라토리로 대표되는 저명한 교수들이 많았던 것에서 유래하지만, 이와 같이 현지에서 수집한 귀중한 자료가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 또한 가쿠슈인의 동양학 수준을 향상시킨 요인이었다.

43) 『滿韓旅行紀念号』 75면.

44) 東洋文化研究所編(2009), 『知識は東アジアの海を渡った』丸善ブラネット.

45) 『院長より白鳥宛文書』(1906년 10월 25일)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옛 기와 한 장을 한나라 시대의 평토편부근에서 발굴. 앞 물품을 본원에 기부해 주시어 황송하게 받겠습니다. 영구보존하여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明治卅九年 同四十年 教務録』, 가쿠슈인아카이브.

5. 학생들이 본 만주-다이쇼시대의 ‘지나만선수학여행’

가쿠슈인의 해외여행은 다른 기관의 기획에 편승(교원시찰여행, 칭다오여행)하거나 혹은 이러한 여행에 뜻이 있던 사람들이 장기휴가로 떠난 것(사할린 여행, 타이완여행 등)뿐이었는데, 1918년 정식의 학교행사로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1회는 ‘지나, 만선여행’이었다. 여정은 도쿄에서 고베로 이동해서 증기선으로 칭다오에 도착한 뒤에 지난, 취푸, 베이징, 장자커우, 난커우, 텐진을 지나 다롄, 뤼순, 평텐 그리고 평양과 경성을 순행하고 귀국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의 편승여행이나 뜻있는 학생들에 의한 여행과 비교하면 여행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여행에서 새롭게 방문지로 추가된 것은 ‘북지(北支, 산둥반도부터 베이징에 이르는 지역)’이다. 칭다오는 여행이 실시된 1918년 단계에서는 일본의 점령지였다.⁴⁶⁾ 일본인 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던 배경도 있어서 새롭게 추가된 ‘영토’ 내지는 ‘외지’이며, 당시의 교육에는 불가결한 장소였다. 그러나 칭다오를 포함하는 ‘북지’는 중화민국의 영토였다. 이 시기 외국인 여행은 자유화되었지만, 오오쿠마 내각(大隈內閣)이 21개조 요구를 제시한 이후 중국의 대일감정이 명백하게 악화되었던 시기였다. 다행히도 이 여행에서는 사고 없이 전원이 무사하게 귀국했지만, 여행복 차림으로 ‘작업복과 헬멧’이 지정되었던 것은 여행의 위험을 크게 예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가자는 교원 3명, 의관 1명, 학생은 5개 반으로 분할하여 35명, 총 39명이었고 여비는 143엔이었다.⁴⁷⁾ 여행 목적은 중국, 만주, 조선이라고 하는 일본과 관계가 깊은 지역의 ‘지리풍속문물 등을 시찰 조사’하는 것이었다.⁴⁸⁾

46) 칭다오는 19세기말 독일이 청으로부터 조차해서 동아시아 진출 기지로 개발하였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초에 영일동맹에 따라 독일에 선전 포고하고 단기간에 칭다오를 점령하였다. 21개조 요구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조차권 계승을 인정받았다. 이후 많은 일본인이 이주하여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었지만, 중화민국 국민의 권리회수운동의 고조에 따라 1922년 반환되었다.

47) 「支那滿鮮旅行心得」, 「大正七年 雜件錄」, 가쿠슈인아카이브.

48) 「宮內大臣へ上申書」(1918년 7월 10일), 「大正七年雜件錄」, 가쿠슈인아카이브.

제1회 해외 수학여행에는 가쿠슈인의 교수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불교학자, 철학자)⁴⁹⁾가 동행하여 학생들을 감독하였다. 1906년 동양사학자 시라토리(시라토리)가 동행한 것처럼 동양학의 전문 교수가 학생의 감독 역할을 맡는 것이 이후로도 통례가 되었다. 다이세츠는 평텐의 시가지를 학생들과 함께 둘러보고 불교의 교의나 불상에 대해서 혹은 이슬람에 대해서 해설하였다.⁵⁰⁾

이 여행도 가쿠슈인으로부터 외무성 혹은 현지기관에 여행 중의 편의제공에 대한 의뢰와 중국측의 협력을 요청하는 조회가 있었다. 또한, 칭다오 민정서나 지난총영사, 베이징공사관, 텐진총영사, 만철이사, 관동도독부, 평텐영사, 조선총독부, 미쯔이물산(장자커우와 텐진출장소), 지나주둔군 등 앞으로 ‘대단히 수고를 끼쳐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이라 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의뢰장을 발송하였다.⁵¹⁾

감독자로 동행했던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마바 테츠(馬場轍), 엔도 카네히데(遠藤金英)가 여행 후에 함께 집필한 「지나만선여행보고」에 따르면, 여행 중에 중국군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함께 하거나 일본 영사관과 공사관 등 관계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여행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여행에서 학생들의 감상은 어떠했을까. 1906년 여행처럼 감상문이 『輔仁會雜誌』에 「북지나 및 만선여행기」라는 주제로 게재되어 있

49)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의 본명은 스즈키 테타로(鈴木貞太郎). 주요 저작은 『禪の研究』가 있으며 니시다 키타로(西田幾多郎)와도 교류하였다. 가쿠슈인에서는 1909년부터 1921년에 걸쳐 교편을 잡았으며, 그 후 오오타니대학(大谷大學)으로 전직하였다.

50) 岩村英武(1918.12), 「奉天市」, 『輔仁會雜誌』 제106호, 95-97면.

51) 각 조직에는 「관내견학, 시찰의 순서와 방법의 제시」, 「하숙의 선정(필요한 것 일습 지정 바람)」을 공통적으로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각각 다음과 같은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다. 칭다오민정서의 「산동철도 승차권」, 지나총영사의 「취푸, 타이안푸 견학여행의 준비」을 비롯한 「지나화궤환전권」과 「진푸철도 승차권」, 베이징공사관의 「지나 궁전 또는 별궁 등 견학의 절차」과 「난커우숙박권」, 텐진총영사의 「다렌 도항승선의권」, 만철이사의 「푸순견학권」, 관동도독부의 「관내시찰, 전적견학의 순서방법의 제시」, 평텐총영사의 「옛 궁전 또는 북릉 견학에 관한 준비」, 조선총독부의 「총독부, 경복궁 등 배관의 준비」, 미쯔이물산(장자커우 출장소·텐진지점)의 「장자커우, 난커우 간의 철도승차 권」, 지나주둔군의 「그에 합당한 편의(구체적인 내용의 기술은 없음)」.

다. 여행기는 방문한 도시마다 대표자가 집필하였는데 여러 명의 감상을 비교해서 그 특징을 검토해 보자. 여행에서 학생들의 감상은 ① 중국, 만주, 조선에 대한 열시, ② 역사적, 문화적인 흥미, 관심, 친근감, ③ 일본의 행정에 대한 비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은 1906년과 마찬가지로 현지의 불결함을 혐오하거나, 현지의 사람들에게 열시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여행에서는 비교적 자유행동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지인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현지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고자 한 이들도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마츠카타 요시사부로(松方義三郎)⁵²⁾는 장자커우에서 ‘지나숙’에 숙박하며 밤에 연극을 견학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그는 “베이징에서도 지난에서도 항상 일본인 여관에만 묵으며 일본식만 먹었던 것이 내심 적지 않게 불만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⁵³⁾ 그는 이러한 “진정한, 숨겨져 있지 않는 중국”을 느끼고 중국을 “친근감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였다.

또한, 이와무라 히데타케(岩村英武)는 “베이징에서 라마교 사원을 견학한 후 그것이 굉장히 좋았고”⁵⁴⁾, 평톈에서도 교수인 스즈키 다이세츠와 함께 사원을 돌아보며 불교의 교의와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해설을 듣고 점점 더 관심이 높아졌다. 이슬람 사원(모스크)에 이르러서는 “라마교 사원이 농후한 것에 반해, 모스크가 지극히 단순하고 청초한 것도 나는 좋았다...아라비아 문자가 실로 맘에 든다”⁵⁵⁾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으로 이동하는 날의 심경을 ‘나도 만약 어린애였다면, 틀림없이 중국에서 돌아가지 않고 만주에 남겠다고 떼를 써겠지...나는 못 견디게 중국을 떠나는 것이 싫었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③으로 분류되는 감상을 가진 학생들의 시선은 냉정하며, 선불리 일본의

52) 松方義三郎(1899~1973)은 松方正義의 아들이자 유명한 등산가이며, 일본 보이스카웃 제6대 총재로도 알려져 있다. 1928년 만철에 입사하여 동아경제조사국에 근무하였다.

53) 松方義三郎(1918년 12월), 「張家口」, 『輔仁會雜誌』 제106호, 83면.

54) 岩村英武(1918년 12월), 「奉天市」, 『輔仁會雜誌』 제106호, 95면.

55) 岩村英武(1918년 12월), 「奉天市」, 97면.

만주 경영을 찬양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만철의 운영이나 직원에 대한 의견 등은 신랄한 비판이 관찰된다. 여담이가 잘 열리지 않는 차량 창문의 개선을 지적하거나 혹은 열차 운행의 지연과 그에 대한 사원의 대응이 형편없음을 비판하고 있다.⁵⁶⁾

만철의 경영은 반관반민적이다. 만주에는 만철이 있는 덕에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많고 더구나 식민지에 많은 하등한 인간상대가 많아서인지, 어딘가 종업원 조무래기들까지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타락해버린 공무원 티를 낸다.

가쿠슈인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 정규 수학여행에서는 중국이나 만주, 조선에 대한 멸시의 시선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지의 풍속과 문화에 높은 관심과 동시에 중국, 만주에 대한 친근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여행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주에서 일본인의 오만함에 비판적이었던 학생들도 존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첫 해외 수학여행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으며, 그들의 체험은 학내의 전시회 혹은 강연회를 통해서 여행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과도 공유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학여행이 참가한 학생들의 사상과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1906년 여행에서 학생 자신들이 장래 만주경영 혹은 중국정책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었던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다이쇼기 여행에서 학생들의 감상문을 보아도 그와 같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여행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는 수학여행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중국과 만주에 대한 관심을 크게 고취시키고 중국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인물도 있었다. 바로 1925년 여행에 참가한 [사진 3]의 미즈노 카츠쿠니(水野勝邦)이다.⁵⁷⁾ 미즈노는 1904년 미

56) 西西乙(1918년 12월), 「奉天」, 『輔仁會雜誌』 제106호.

57) 1904년~1988년.

즈노家の 19대 인물이며, 1928년 가쿠슈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부친은 귀족원(貴族院)의 회파와 연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이다. 후년 미즈노가 집필한 수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⁵⁸⁾



[사진 3] 北京水野公館에서 水野勝邦. (주학습원의 만주 수학여행에 참가한 水野勝邦(좌측)은 나중에 중국관련 연구자의 길을 걸었다. 이 사진은 북경 水野公館 앞에서 귀족원 의원들과 촬영한 것이다. (자료) 1941年, 尚友俱樂部所藏.

58) 水野勝邦(1973), 「私と中國(旅の思い出)」, (回想録, 上田和子氏 소장).

다이쇼14년 여름, 학생의 신분으로 만몽여행을 했습니다. 그 때에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단지 왜 러시아와 여기에서 싸운 것일까, 러일전쟁 후 일본인은 만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의문에 이어서 중국을 몸소 접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 중국에 가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 이 여행을 계기로 중국연구에 몰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는 무엇을 생각하던 무엇을 하든 항상 중국연구를 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즈노는 가쿠슈인을 졸업한 후에 도쿄제국대학에 진학하여 ‘지나철학’을 전공하며 중국연구자의 길을 걸었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는 가쿠슈인과 제국대학 은사인 시오다니 온(塩谷温⁵⁹)의 추천으로 외무성 파견원으로 중국에 부임하였다. 또한, 1932년부터는 베이징 서성의 屯絹胡同에서 거처를 두고 외무성 유학생 신분을 거쳐 북지나개발회사 조사국, 텐진의 화학공업회사에 소속하였다. 현지에서는 언어 습득 외에도 ‘지나전반예비지식’, ‘지나상대사적’, ‘국제도시로서의 상하이’, ‘지나사상문제’, ‘홍콩에서의 지나세력’ 등 주제에 관심을 가졌고, 중국과 일본의 왕복 횡수는 48회에 달하였다. 1938년 외무성 在支 특별연구원으로 선발되었을 당시의 연구 주제는 ‘현대 지나문화와 사회경제사상’이었으며 연구원으로서 몽고지방을 비롯해 각지에 대한 조사여행을 실시하였다. 전후에는 사립대학에서 중국경제를 강의하는 등 일생을 중국연구에 종사하였다.⁶⁰ 미즈노처럼 수학여행을 계기로 중국연구와 일본의 정책에 관여한 예는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쿠슈인이 인재육성과 일본의 대륙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는 해외 수학여행의 본래의 목적을 체현한 인물을 배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59) 塩谷 温(1878-1962)은 한학자이며, 동경제국대학 한학과를 졸업한 이후 모교 교수에 취임해서 독일과 중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였다. 1904년부터 1906년, 1923년부터 1941년에 걸쳐 가쿠슈인에서 한문과 작문을 가르쳤다.

60) 「水野勝邦」(在華本邦特別研究員關係雜件外交史料館所藏 B-H-05-07-00-06-02-00-03), 앞서 水野勝邦(1973), 「私と中國(旅の思い出)」.

6. 맺음말

이상, 본 연구는 가쿠슈인의 해외 수학여행을 개관하고, 학생들이 집필한 감상문의 특징을 분석하는 동시에 정부기관이나 군으로부터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06년 단계에서 학생들은 만주여행을 떠났던 교원이나 타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제국의식을 드러냈고, 동시에 만주(중국)와 조선인에 대한 멸시의 시선을 보냈다. 반면, 장래의 외교관, 정치가 혹은 군인을 자처하는 가쿠슈인 학생들은 스스로 만주 경영에 종사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현지를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메이지기 사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제국의식이나 멸시의 시선은 다이쇼기 수학여행 당시에는 그 이전처럼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현지의 풍물이나 역사(‘지나극’에 대한 관심과 종교에 대한 흥미 등)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그 이전보다 강하였다.⁶¹⁾ 러일전쟁 직후 시작된 만주경영이 서서히 안정되고, 또한 한국병합을 거쳐서 제국의식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성을 갖게 됨에 따라 일본의 발전과 확대를 선불리 부채질하는 담론은 일본 국내 미디어 등에서도 감소하였다. 이는 당시 여론이 세력 범위와 식민지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논의로 그 중심이 옮겨간 것과 비례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1906년 여행을 비롯하여 여행에 참가했던 학생은 수명에서 수십명 정도로 극히 적었지만 보고서(『輔仁會雜誌』)의 출판이나 국내에서의 강연회(보고회), 전람회 개최를 통해서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수학여행은 가쿠슈인 학생들 거의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친 중요한 행사였다고 하겠다.

만주, 조선, 중국 지역에 대한 세력 확장은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가장

61) 學習院旅行團(1918년 12월), 「北支那及び滿鮮旅行記」, 『輔仁會雜誌』 제106호에 수록된 감상문 등.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정책(대륙정책)은 이른바 일본의 국책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요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즉, 수학여행은 만주와 조선을 보다 가까이 느끼게 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 사이에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수학여행을 계기로 중국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고 일본의 외교정책에도 깊게 관여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수학여행이 만주경영 혹은 대륙정책의 일부로서 유효하게 기능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有山輝雄, 2000, 『海外旅行の誕生』, 吉川弘文館.
- 高媛, 2008, 「戦地から観光地へー日露戦争前後の「満洲」旅行ー」, 『中國21』 29.
- _____, 2000, 「ノスタルジーと観光ー戦後における日本人の満州観光」, 『國際交流』 23-1.
- _____, 2010, 「戦勝が生み出した観光ー日露戦争翌年における満洲修學旅行」, 『ジャーナル・オブ・グローバル・メディア・スタディーズ』 7.
- 阿部安成, 2008, 「大陸に興奮する修學旅行ー山口高等商業學校がゆく「滿韓支」「鮮滿支」ー」, 『中國21』 29.
- 宋安寧, 2008, 「1906(明治39)年における「滿洲教員視察旅行」に關する研究」, (神戸大學)『研究紀要』 1-2.
- _____, 2012, 「帝國教育會主催の中國大陸視察旅行：1919年の第一回支那及滿鮮視察団・1929年の支那教育視察団・1939年の皇軍慰問並に日滿教育親善使節派遣」, 『社會システム研究』 24.
- 森久男, 2008, 「東亞同文書院教授鈴木擇郎の滿洲國調査旅行」, (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 114.
- 田村尚子, 2013, 「日本の朝鮮植民地旅行に對するまなざしー雑誌〈旅〉を読む」, 『日本文化論年報』 16.
- 長佐古美奈子, 2013, 「學習院における歴史教育の始まりと標本室」, 『學習院大學史料館紀要』 19.
- 長谷川怜, 2013, 「學習院の海外修學旅行」, 『東洋學の歩いた道』 展図録.
- _____, 2013, 「貴族院議員の海外視察」, (尙友俱樂部・長谷川怜編)『貴族院・研究會寫真集』芙蓉書房出版.

■ 日文概要 ■

近代日本の満州修學旅行と満州認識
-學習院」の事例を中心として-

長谷川 怜

1905年、日露戦争の勝利によって日本は満洲における權益を獲得し、満洲經營を開始した。だが、満洲における日本人コミュニティの形成は進まず、政府は満洲經營に對する國民世論を盛り上げる必要性に迫られた。新聞や雑誌などメディアを使った宣伝だけでなく、實際に現地の様子を見せる満洲旅行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陸軍や文部省の支援によって全國の學校で満洲修學旅行が實施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

皇族や華族の子弟を教育するために設立された學習院でも、1906年から學生の満洲旅行が行われた。學習院では、白鳥庫吉など著名な東洋史學者が東洋學を講じるなど、學生のアジアに對する關心や知識には深いものがあつた。旅行に出かけた學生たちは、將來的に満洲・中國政策に關わるという自覺から冷靜に日本の満洲經營を分析した。そして、満洲修學旅行を契機として外務省の調査員となり中國政策に關わつた人物もいた。

満洲修學旅行は、満洲經營を宣伝するだけでなく、人材育成の面でも効果を發揮した。いわば、大陸政策の一部として認識し分析する必要があるといえる。

核心語：日露戦争、旧制學習院、満洲修學旅行、白鳥庫吉、帝國意識